

'미스터 션샤인' 침체된 드라마 시장 살리나



올해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인 tvN 주말극 '미스터 션샤인'의 첫 방송이 4일 기준 딱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시청률 두 자릿수의 미니시리즈를 찾아보기 어려워진 가운데 최고의 제작진과 캐스팅, 대규모 스케일을 자랑하는 '미스터 션샤인'이 침체한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지에 이목이 모인다.

◇ 실패하기 어려운 조합... 차별화된 소재도 강점
'미스터 션샤인'이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역시 김은숙 작가의 신작인 덕분이다. 김 작가는 '파리의 연인'(2004), '시크릿 가든'(2010-2011), '태양의 후예'(2016) 등 수많은 인기작과 케이블 시청률의 역사를 쓴 '도깨비'(2017)를 탄생시킨 주인공이다.

초호화 캐스팅도 성공을 낙관하는 요인이다. 9년 만에 드라마로 돌아온 이병헌은 일제강점기 직전 미국의 이권을 위해 조선에 주둔하는 검은 머리의 미국 해군장교 유진 초이 역을 맡았다. 그와 호흡을 맞출 조선의 정신적 지주 고씨 가문의 마지막 핏줄 예신 에피씨는 스무살 연하의 김태리가 연기한다.

맡은 역할마다 최고의 연기력을 보여주는 이병헌과 최근 영화계 대세 여배우로 꼽히는 김태리가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어떤 로맨스를 보여줄지 시청자들의 기대가 크다. 조연들 역시 유연석, 변요한, 김민정 등으로 웬만한 드라마의 주연급 못지않다. 드라마 화제성 덕분에 작은 역할을 맡은 조연들까지 적지 않은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출연진 중 한 명인 윤주만의 혼사가 온종일 포털사이트에서 회자한 것만 봐도 그렇다.

'미스터 션샤인'의 남다른 소재 역시 차별화 무기 중 하나

올 최고 기대작 '미스터 션샤인' D-3

이병헌·김태리 등 캐스팅 기대감 높아
넷플릭스 방영권 계약 등 해외서 관심

나. 이 이야기는 가쓰라 태프트 밀약이 이뤄진 1905년,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기 직전을 배경으로 한다. 그동안에도 항일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가 많았고 드라마도 이따금 있었지만, 독립운동의 시초를 그린 작품은 없었다.

이영복 PD는 최근 제작발표회에서 "우리나라가 넘어가기 전 끝까지 항거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은 잘 남아있지 않다"며 "이 드라마가 차별화되는 부분도 바로 그 점"이라고 말했다.

◇ 1년 촬영·1만명 출연·4만km 이동...장대한 스케일
영화 한 편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막대하게 투입된 제작비, 그에 걸맞은 장대한 스케일도 관심을 끈다.

제작비가 수백억 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작진은 구한말 격동의 근대사를 담기 위해 웅장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영상을 선보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특히 미군이 군함을 앞세우고 강화도 초지진에 상륙해 전투를 벌인 신미양요 장면은 초반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이 작품은 '생방송'처럼 찍는 여타 드라마들과 달리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촬영을 시작해 현재 70%가량 촬영했다. 덕분에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영상에서 오롯이 볼 수 있다. 제작진은 당시 시대상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컴퓨터그래픽과 특수효과 등 후반 작업에도 세심하

게 공을 들이고 있다.

또 1871년 신미양요와 1900년대 근대 조선을 보다 사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부산, 대구, 대전, 경주, 안동, 함천, 하동, 부안, 전주, 청주, 논산, 강화도 등 전국 곳곳을 누볐다. 촬영을 위해 이동한 거리만 4만km에 달한다.

국내 최초로 1900년대를 재현해낸 세트장은 논산 야외 세트 6천평, 대전 실내세트 2천평 등 약 8천평에 달한다. 세트장에는 그 시대의 건축물들과 전차, 옹기, 성벽이 세밀하게 재현됐다. 호텔과 미국 대사관 사무실 내부 역시 꼼꼼하게 채웠다.

◇ 넷플릭스 선판매...중국 등 해외 관심도 커
항일운동을 소재로 하기에 수출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에 이병헌은 "굉장히 큰 역사, 정치적인 이야기이지만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을 중심으로 다룬다"며 "외국인이라도 이야기를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제작진 역시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많은 국가가 근대화 과정에서 외세의 침입을 받은 사연이 있어서, 독립운동이라는 소재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세계 최대 동영상 온라인서비스업체 넷플릭스에서 제작사인 스튜디오드래곤으로부터 방영권을 약 300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190여개 국에 7월 7일부터 차례로 서비스한다. 넷플릭스만 전용 포스터 역시 공개했다.

넷플릭스 방영권 계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미스터 션샤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마 이제 60분간 즐기세요"

지상파 3사 방송시간 합의

지상파 3사가 드라마 회당 방송시간을 60분에 맞추기로 합의했다. 3일 지상파 드라마국에 따르면 3사는 7월 1일부터 평일 밤 10시 드라마와 주말극의 방송시간을 광고를 제외하고 60분에 맞추고 있다.

3사는 2013년 회당 방송시간을 광고 포함 67분으로 줄이는 데 합의한 바 있지만, 미디어 환경 변화로 최근 지상파에 광고가 잘 붙지 않게 되면서 드라마 편성 시간이 60-63분 정도로 뜸썹날썹했다.

이런 가운데 3사의 새로운 합의는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최대 68시간)' 근로기준법 시행에 발맞추고, 광고 시장 위축 속 지상파 간 출혈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나가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3사가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방송시간 60분'은 전타이틀과 전CM, 프리타이틀CM, 후타이틀과 후CM을 제외하고 드라마 내용과 1부 방송 전 연령고지 일부, 1부 끝 타이틀, 2부 타이틀, 2부 연령고지 등을 합한 시간이다.

다만, 3사는 '상호 신뢰 하에 구두 합의'를 전제로 관련 내용을 별도로 문서화하지는 않았다.

한편, 3사는 주 68시간 제작 환경과 관련해서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6개월의 계도 기간이 확보된 가운데 드라마의 경우 조속한 대본 집필과 방송 촬영 지양 등을 위주로 현장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그레이트 승리"

빅뱅 승리, 20일 솔로 앨범 발표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8)가 오는 20일 솔로 정규 1집 '더 그레이트 승리'(The Great Seungri)를 발매한다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3일 밝혔다.

승리의 솔로 활동은 2013년 8월 발표한 미니앨범 '렛츠 토크 어바웃 러브'(Let's Talk About Love) 이후 5년 만이다.

아울러 승리는 8월 4~5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승리 2018 파스트 솔로 투어 [더 그레이트 승리] 인 서울 x BC카드'(SEUNGRI 2018 1st SOLO TOUR [THE GREAT SEUNGRI] IN SEOUL x BC CARD)를 연다.

YG는 "방송에서 예능감을 뽐내면서도 사업가로 성공적으로 변신해 '승츠비'(승리+개츠비)라는 별명을 얻은 승리가 다시 가수로서 무대에 오른다"며 "완성도 높고 다채로운 곡을 들려줄 것"이라고 전했다.



TV프로그램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러시아 3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찬란한 밥상 스페셜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이리와 안아줘(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비록(재)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2018 상반기 결산7인의 빅매치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50 속보보는TV 인사이드(재)	00 12 MBC 뉴스 20 2018 FIFA 러시아월드컵 하이라이트 볼터치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러시아월드컵 하이라이트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한국인의 밥상(재)	55 숨터(재)	25 TV속의 TV	
2	40 다큐 공감(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25 헬로키즈 동물교실	00 뉴스브리핑
3	30 UHD 숨터 35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하이라이트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프리파라 3 50 푸리가 식사교실	
4	00 사사건건	00 여유만만	20 비밀과 거짓말(재)	00 SBS 스페셜(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꼬마탐정 토비와 테리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뉴스콘서트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닥터 365 05 고향건강톡 남도에 살어리랏다 55 지식 통조림
7	00 KBS 뉴스 7 35 공감다큐, 사람	50 인형의 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살리는 남자들	5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UHD 숨터	00 당신의 하우스헬퍼	00 이리와 안아줘	00 훈남정음
11	00 KBS 뉴스라인 40 미추홀, 2000년만의 부활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로맨스 패키지 1~2부
12	3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1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기획 세상의 모든 다큐	40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감자 고추장찌개와 건두부 채소쌈>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삼국지 북벌>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15 엄마 까투리
06:00 한국기행(재) <한반도 평화특집.바람이 불어오는 곳>	12:00 EBS 정오뉴스	17:30 뽀롱뽀롱 뽀로로
06:20 세계테마기행(재) <우리 지금 만나 가수 장기하의 캐나다>	12:10 EBS 초대석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5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00 지식채널e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화산섬의 비밀
07:30 꼬마버스 타요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9:30 EBS 뉴스
08:00 당동당 유치원1~2	13:4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재)	19:50 초이슈
08:30 미니특공대 X	14:30 코코몽3	20:40 세계테마기행 <하늘길 따라 중국 칭양열차 3부 맑은 영혼의 땅 티베트>
08:45 말랄라 뿌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울 만난 여름 3부 담음을 부탁해>
09:00 엄마 까투리	15:15 파프리카	21:50 EBS 다크프라임
09:30 원더볼즈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2:45 극한기행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3:55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10:30 한국기행(재)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6:30 말랄라 뿌우(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36년생 땅이 꺼지게 한숨 쉴 일이 생긴다. 48년생 순발력을 요하는 때이다. 60년생 예상 밖의 손실이 보이나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72년생 억지로 꾸미려 하지 말고 본래 대로 놔두는 것이 자연스럽다. 84년생 고단함은 미래의 결실을 기약한다. 행운의 숫자 : 70, 26	37년생 분의 아니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판도이다. 49년생 인내는 곧 보람의 열쇠가 될 것이다. 61년생 알면서도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더 큰 모순이다. 73년생 입으로 인한 화근을 짓지 말라. 85년생 취약하거나 저조한 면모이다. 행운의 숫자 : 65, 59	38년생 가장 근본적인 면이 해롭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50년생 부족하면 반드시 채워 줘야만 하느니라. 62년생 활력소가 되어 줄 만한 조건이 주어지게 된다. 74년생 고난은 삶을 단련시켜 줄 것이다. 86년생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6, 92	39년생 실익을 잘 따져서 값진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1년생 세심하게 분석해 보는 것이 유익하다. 63년생 조심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진다. 75년생 선의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 87년생 작심 했다면 실행하라. 행운의 숫자 : 33, 47	40년생 중용의 입장에서 타협함이 나올 것이다. 52년생 함께하면서 변화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낫다. 64년생 성과를 거둘 수 있으니 기대해 볼만하다. 76년생 좀 더 큰 구도에서 다뤄야 할 문제점에 틀림없다. 88년생 의연히 대처하라. 행운의 숫자 : 64, 70	41년생 새로운 일에는 끼여들지 말라. 53년생 원인을 분명히 따져봐야만 바로 잡을 수 있다. 65년생 경우에 맞지 않으면 봉합할 소지가 많다. 77년생 흥보다 길이 더 크다. 89년생 본격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실책을 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3, 91	42년생 잔물결이 항해에 주는 역할은 미미하다. 54년생 겸손함 속에서 복이 피어나리라. 66년생 길운이 행하러 이루어지 못할 일이 없겠다. 78년생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으니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 90년생 내버려 두면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01, 50	43년생 불굴의 의지가 필요한 단계에 와 있다. 55년생 여러 사람의 지혜가 모아져야 대처가 가능하다. 67년생 찾아오는 이가 보인다. 79년생 차분하게 임해야 후회 없는 대처를 할 수 있다. 91년생 여러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여 판단하라. 행운의 숫자 : 19, 43	44년생 소신껏 임했을 때 탄력이 붙게 되리라. 56년생 핵심 사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다루자. 68년생 의뢰해 보는 것도 괜찮다. 80년생 욕심을 가려내지 못하고 함께 하는 고통이 상당하다. 92년생 뜻밖으로 이중 또는 삼중의 행운이 따르리라. 행운의 숫자 : 99, 62	45년생 희망의 세계로 진입하는 형세이다. 57년생 기만 없이 행해 보라. 69년생 현재 힘들더라도 참아야만 발전된 판세를 도모할 수 있다. 81년생 계획대로 조처한다면 성공의 길을 이끄는 열쇠가 보인다. 93년생 절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행운의 숫자 : 26, 84	34년생 거슬러다려도 충고에 귀 기울이는 것이 좋다. 46년생 뜻 깊은 날이다. 58년생 하늘의 도움이 클 것이니 품을 펼쳐 볼 수 있는 때이다. 70년생 개입하지 말고 잠자코 있는 것이 낫다. 82년생 함께 나아 갈 수 있는 마당을 만들자. 행운의 숫자 : 80, 52	35년생 신경 쓰다못해 머지않아서 호전 되겠다. 47년생 외 부적 요건에 구애받지 말라. 59년생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71년생 부차적인 면에서 파생되는 이익이 더 알할 것이다. 83년생 불변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겠다. 행운의 숫자 : 95, 5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